책머리에 8

감수의 글 11 · 추천의 글 14

송파, 서울의 중심 22

가락동 28

낮은 구릉 사이 앉은 12동네, 그 아늑한 매력에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터를 잡고 살아왔다.

거여동 48

이름처럼 넉넉한 인심이 있는 곳. 고래논에서 난 찰진 쌀로 지은
밥 한 그릇이면 산해진미도 부럽지 않다.

마천동 66

중국대륙을 호령한 임경업 장군의 말이 이 곳,
마산에서 나왔다. 그 기상을 이어받은
주민들이 강단있게 마을을 일군다.

문정동 82

학이 알을 품고 있는 예사롭지 않은 형상.
그래서 물맛 좋은 우물과 수백 년 마을을 지키는 느티나무가 있다.

방이동 102

병자호란때 청군의 주력부대는 방이동을 넘지 못했다.
하느님이 지켜주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삼전동 116

경강 3진의 하나, 삼전도 병자호란 치욕 후 송파나루로 그 영화를
넘긴 후 조용한 마을로 남았다.

134 석촌동

백제초기권력자들이 묘를 썼던 명당, 삼천갑자 동방삭도 노닐었다. 귀신을 쫓는 황계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152 송파동

전국 15대 향시중 하나, 송파장. 이곳이 있어 송파산대놀이도, 송파다리밟기도 전해질 수 있었다.

174 신천동

개구쟁이들의 놀이터, 영화촬영소, 캠핑장, 모두 새내의 모래사장이다. 하와이백사장도 이보다 아름답지 않았다.

190 오금동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지어도 오금동에서는 먹을것 걱정 말랬다. 그 어느 마을보다 후한 인심 때문이다.

206 오륜동

한성백제 500년의 역사가 깃들은 곳, 몽촌토성. 그곳에서 세계인의 대축제 88서울올림픽이 열렸다.

232 잠실

양잠업 쇠퇴기에는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이었지만 올림픽 이후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꼽힌다.

252 장지동

장지동만큼 단결된 주민의 힘을 볼 수 있는 곳은 없다. 장지대동회를 비롯한 주민모임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262 풍납동

한성백제 500년의 베일을 벗겨줄, 풍납토성. 그 신비한 매력에 풍납동이 더 빛난다

282 참고문헌

285 도움말 주신 분